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종족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

이 지 윤*

【요약】

신기욱의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는 그간 적절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를 분석한다. 필자는 이 저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첫째, 이 저작은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의 오류와 편향을 노정하고 있다. 곧 민족과 경쟁을 벌인 대안적인 정체성이 어떤 점에서 민족과 구분되는 정체성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하거나, 역사적인 현실을 과잉단순화하면서 대안적인 정체성과 민족의 경쟁 및 종족적 민족주의의 계보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그려낸다. 둘째, 이 저작에서는 분석틀과 실제 분석의 괴리가 나타난다. 저자가 제시하는 '배태된, 우연한, 경쟁적인' 민족의 구성이라는 분석틀은 시원주의적 견해의 오류와 구성주의적 견해의 난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으나 이런 분석틀에 부합하게, 혈통에 기반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역사적 구성의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주의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처음부터 종족적 민족주의 패권적 지위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저자는 한국민족주의를 '예외적 사례'로 보는 서구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관점에 동조하면서, '종족적 민족주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분석한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민족주의가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더라도,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주제어】 종족적 민족주의, 정치적 민족주의, 범아시아주의, 식민지 인종주의, 국제사회주의, 시원주의, 구성주의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강력한 '단일민족의식'이 한국 민족주의의 주된 특징으로 거론되어 왔다. 홉스봄(Eric Hobsbawm)이 한국을, 중국 및 일본과 더불어, "종족적으로 거의 또는 전적으로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된 역사적 국가의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고 언급한 것처럼,[1] 서구의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한국 민족주의를 종족 동질성 의식에 기반한 예외적인 사례로 다루었다. 국내 연구자들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맞선 저항적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단일민족의 실재성을 당연시했다. 식민 지배를 겪고 독립국가 완성의 추가적인 과제를 남겨 놓은 분단의 조건 하에서, 민족주의는 모든 정치이념의 공통분모인 동시에 모든 정치세력들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원천이었다. 그것은 질문을 불허하는 신성한 이념이었던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가 예외적인 경우로 다루어지거나 신성화되면서, 정작 그것에 대한 치밀한 학문적 탐구는 도외시되었다.

최근 민족주의가 외부에 대한 배타성과 내부에 대한 억압성을 지닌 이데올로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파 지식인들이 "민족지상주의와 현대사에 대한 좌파적 해석이 그동안 우리 지식계를 압도해 왔다"는 공세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2]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되었다. 이런 논쟁은 이전까지 민족주의를 감싸고 있던 신성성을 한 꺼풀 벗겨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쟁의 양상은 한국민족주의의 기원과 정치에 대한 탐구를 촉발시키기 이전에,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완고한 옹호와 일면적인 거부라는 이분법적인 찬반의 대립으로 과열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대립 속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식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족 동질성 의식에 바탕을 둔 한국 민족정체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가

1)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66.

2)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13쪽.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신기욱의 『한국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는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그는 이 저작에서 특히 한국 민족주의의 종족적 차원, 즉 한국에 만연한 혈통에 바탕을 둔 민족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분명 한국 민족주의를 성급하게 옹호하거나 거부하기 이전에 이런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자의 시도가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의 근저에 있는 민족에 대한 시원주의적 견해와 근대주의적 견해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 성공여부에 따라 이 저작은 한국 민족주의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민족주의 이론 일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저작은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의 오류와 편향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배태된(imbedded), 우연한(contingent), 경쟁적인(contested)' 민족의 구성이라는 저자 자신의 분석틀에 부합하게, 혈통에 기반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역사적 구성의 소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이하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민족주의의 종족적 차원이 그 정치를 규정한다는 환원론적 설명보다는, 한국 민족주의가 '예외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Ⅱ. 역사적 해석의 문제

1. 범아시아주의: 다른 버전의 민족주의?

신기욱은 민족주의가 특정 형태의 민족주의로 형성되기 전에 먼저 계급, 성, 인종과

같은 비민족적·초민족적 정체성과 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30).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범아시아주의, 식민지 인종주의, 국제사회주의라는 민족과 다른 형태의 정체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그 패권적 지위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타당하려면 무엇보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범아시아주의, 식민지 인종주의, 국제사회주의가 민족과는 다른 정체성이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의 설명에서 범아시아주의는 민족주의의 동기와 목적을 공유하는 상당히 중첩된 정체성으로 그려진다.

저자에 따르면, 범아시아주의자들은 "당면한 세계를 인종, 특히 백인종과 황인종 사이의 경쟁의 장"으로 보아 황인종, 특히 일본인과의 연대가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를 방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당대를 제국주의시대로 보고 제국주의 세력, 특히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민족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민족주의를 요구했다(60-1). 저자는 이런 이념형적인 정의에 의거하여, 범아시아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동시대에 상반된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한 것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우리는 1905년 이후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범아시아주의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강력히 비판한 신채호가 범아시아주의를 주창한 「황성신문」에도 글을 기고하곤 했다는 점, 「황성신문」 역시 독특한 종족적 민족 관념을 확립하기 위해 민족사를 서술하고 문화유산을 고취하는 데 열성을 보이는 한편 일본의 팽창 의도를 우려하는 사설들도 게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상기할 수 있다. 즉, 저자의 이념형적인 정의는 한국에서 범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가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으며, 1905년 이전 시기에는 범아시아주의에 대한 우려가 그 주창자들 사이에서도 운위되었고, 1905년을 경과하면서 민족주의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그 전까지는 범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하면서 중첩되게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범아시아주의의 주창자들 사이에서도 그 주장의 강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등의 세심한 고찰과 맞물려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역사적 고찰 속에서 자신이 제기하는 이념형적인 정의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는커녕, 예컨대 「황성신문」을 "범아시아주의의 초기 후원자(65)"로 언급하면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박은식을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을 장려하면서 범아시아주의자들과의

논쟁적 정치에 직접 뛰어든 민족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한다(68).

이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한국인들에게 가시화된 1905년 이후, 보다 선명해진 범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경쟁을 밀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저자의 이념형적인 정의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의에서 범아시아주의자들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적인 연대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제국주의 세력들에 직면해 한국의 민족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74)"이 범아시아주의의 원래 동기였다. 결국 저자가 분석하는 범아시아주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민족을 수호한다'는 목적을 민족주의와 공유하며, 그 수단에서 있어서만 민족주의와 차이가 날 뿐이다.[3] 즉, 이런 저자의 서술은 범아시아주의가 어떤 점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경쟁한 대안적 정체성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2. 사회주의의 극단화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결집·반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

신기욱은 식민지 인종주의와 국제사회주의가 한국의 정체성에 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종족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뭉쳤고, 이에 따라 안재홍과 같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도 1930년대 중반에는 이광수와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주장한다(95, 130). 다시

3) 보다 순수한 형태의 범아시아주의는 저자의 보충적인 각주에서 포착할 수 있다. 그는 식민지화 이후에도 "일부 범아시아주의자들은 그들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과 협력해 1920년 고려라고 불리는 유토피아적이고 반서양적인 정치조직을 건설하려 했다. 한국과 만주 사이의 간도 지역에 위치한 그곳은 옛 고구려의 핵심부였다(369, 주 17)"라고 서술한다. 이 내용은 두아라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두아라에 따르면, 이 유토피아적·반서양적 정체는 '선언적으로는' 에스닉이나 인종상의 차별없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들의 시민권 행사를 천명했다. 프래신짓트 두아라,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한석정 역, 나남, 2008, p. 194-7.

말해서, 사회주의가 민족을 부정하는 국제사회주의로 극단화되면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결집 및 반발이 일어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종족적 민족주의 대 국제사회주의의 대결구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기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력에서 멀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민족보다는 계급을 옹호했다. 자본주의 시대는 종말에 가까워졌으며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산물인 민족주의는 머잖아 사라질 운명이며 계급이 민족 대신 사회의 주된 원리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112-3).

곧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위기=혁명'이라는 인식 하에 계급에 토대를 둔 보편주의에 극단적으로 몰입하여, "과거 한국의 독특하고 토착적인 양상들을 찬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선학과 단군과 이순신 장군 같은 민족 영웅들의 선양을 편협한 것으로 치부했다(114)"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위기의 30년대에 사회주의자들이 '위기=혁명'이란 인식하에 통일전선전술을 폐기했지만, 그것은 곧 '혁명운동의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자들이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를 혁명으로 전화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혁명 세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조작적 방식들이 현실적인 헤게모니를 획득해가면서 '위기=혁명'이라는 정세판단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 이제 위기는 혁명의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혁명운동 자체의 위기'로 경험되었다."[4] 이런 설명에 따르면, 통일전선전술을 거부한 사회주의의 극단화는 신기욱이 주장하는 것처럼 굳건한 확신 속에서라기보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식은 민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응을 야기했다. 1930년대 '조선학'에 대해 좌파는 공통적으로 민족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으로 비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1) 있지도 않은 '조선' 연구 그 자체를

4)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 세계, 주체』, 푸른역사, 2009.

부정하는 극단적인 입장에서부터 2) 조선의 과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입장, 3) '조선적 고유성'을 발견하려 애쓰는 민족주의의 전통 논의를 비판하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의 과거를 전유하려는 입장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했다.[5]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극단화'는 민족에 대한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다양한 대응 가운데 유독 '조선'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입장만을 강조할 때에 성립하며, 이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6]

이런 과도한 단순화는 1930년대 중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들(126)"의 연합전선 전략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신기욱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국제주의의 한계와 민족주의의 힘을 인식한 일부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연합전선 전략으로 돌아섰다(126)"고도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와 연대를 맺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고들지 않는다. 저자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예로 든 백남운은 민족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다양한 입장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을 취했다. 예컨대 백남운은 1935년 7월 6일『동아일보』에 실린 "정다산의 사상"이나 1935년 8월『신조선』12호(정다산 특집호)에 실린 "정다산백년제의 역사적 의의"에서 정약용을 '경세가적 안목의 소유자', '근세적 자유주의의 일 선구자', '실학파의 빛나는 별'로 칭하면서, "전적으로 보아서 봉건사상을 완전히 해탈한 것도 안이고 근세적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제창한 것도 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산시대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관련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과도적 존재의 반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학적 업적'은 의연히 우리 후배들에게 낏처 준 '귀중한 유산'이 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한다.[7] 또한 백남운은 1936년 정약용 서거 백주년을 맞아 활기를 띤 실학과 다산에 대한 평가, 학술대회 등을 안재홍과 더불어 진행함으로써 일종의 비판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요컨대, '사회주의의 극단화와 종족적 민족주의 결집·반발'이라는 저자의 주장과 달리 1930년대 중반

5) 차승기, 같은 글, 106-9쪽.

6) 신기욱이 소개하는 한응수의 글(115) 역시 당시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입장에 속한다.

7) 백남운, 하일식 엮음,『휘편』, 이론과 실천, 1991, 121쪽.

이후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이광수—백남운: '우리식 사회주의'?

이와 관련해 백남운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의 위상과 영향력이 실제로 그리 크지 않았다는 반박이 제기될 법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저자가 실제로 주목하는 지점은 백남운의 실제적인 위상, 영향력에 있지 않은 것 같다. 신기욱에 따르면, 백남운은 종족민족주의자들이 고취하는 '단군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범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닌 대중적인 영향력을 인정했으며, 특수주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특수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변증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백남운의 이런 '중도적' 성격은 결국 이광수류의 종족적 민족주의로 귀착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마침내 백남운은 한민족이 '세계사에서 예외적인, 수천 년 동안 같은 피, 영토, 언어, 문화, 역사적 운명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이광수의 생각에 동의했다(127)." 요컨대 저자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의 존재를 언급하면서도 1930년대 이후의 시기를 종족적 민족주의 대 극단화된 국제사회주의 대립으로 보는 이유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종족적 민족주의로 흡수되고 말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가 자신의 논의를 위해 참조한 백남운의 글을 직접 살펴보자.[8]

> 또한 조선민족은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적 운명 등의 공통성을 구유한 단일민족으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이례의 존재이거니와 …… 조선민족은 역사상의 불사조로서 인류서식의 지구의 수명이 존속되는 한에는 조선민족도 영속할 것이다. "저 일제의 동화정책의 야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의식은 도리혀 심화하얏든 것이며 그 음모적인 호부(護富)정책과는 반대로 사회적 계급의식은 내면적으로 앙양되여온 것이다. 그 양종(兩種)의식의 구체적인 발로와 실천적 형태가 조선의 연합성 혁명세력을 구성한 것이며 그것이 민족해방을 담당한 것이다."[9]

8) 신기욱은 종종 역사적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서도, 대개 그런 단순화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일견 저자의 주장에 부합할 정도로 맑스주의자의 한계를 많이 넘은 듯 보인다. 하지만 민족에 대한 과도한 수사적 표현과 함께 여전히 민족의식과 사회적 계급의식의 결합이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필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저자와 같은 해석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백남운이 다른 문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좀 더 정연하게 펼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은 어떤 시기에 쓰인 것인지,[10] 이 문건이 실린 매체의 성격은 무엇인지[11]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방공간에서 활동한 백남운이 혈연 등에 기반한 민족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광수의 생각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지 않더라도, "백남운 같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1945년 이후 북한정권에서 일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127)"와 같은 사후적 사실에 의거한 단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는 듯하다. 나아가 이광수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4장에서 북한의 사회주의를 다룰 때 다시 등장하여, 북한 체제에 토대를 제공한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백남운이 '북한 사회주의가 어떻게 이광수식의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토대를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매개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 북한의 정치체제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신채호와 이광수가 1945년 이전에 주창했던 유기적인 민족 개념이었다. 종족민족주의는 전체주의 체제의 토대를 제공했다. 이광수적 민족주의가 전전 일본의 파시즘과 '선택적 유사성'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일본의 파시스트적인 요소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리 놀라울 것은 없다(155).

---

9) 백남운, 하일식 엮음, 「오인의 주장과 사명」, 『휘편』, 이론과 실천, 1991, 364쪽.

10) 이 문건이 연재된 1946년 5월 1일에서 4일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찬탁과 반탁이 선명히 갈라진 신탁정국에서 중도좌파의 입지는 협소해지고 있었으며, 공공연히 찬탁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라면 어느 정치세력이라도 자신의 민족성을 확실히 표명할 것을 요구받던 시기였다.

11) 동원을 위한 수사적인 장치의 구사가 요구되는 대중매체였는지 아니면 당원과 같은 소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한 언급이 표명되는 매체였는지와 같은 문제이다. 덧붙여 이 기사는 『독립신보』 창간호에 연재되었다.

필자는 만약 당시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면, 여기에는 식민지시기 최장수·최고 인기 작가인 이광수의 기여가 일정 정도 있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미친 이광수의 '간접적인' 영향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 사후적인 정황을 근거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신기욱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광수—백남운—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연결하면서 이광수식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불사조'처럼 되살리고 있는 듯하다.

4. 1920년대 민족 만들기에서 보편주의의 지배?

6장 "민족 만들기에서 보편주의와 지방주의(particularism)"에서 신기욱은 당시의 교과서와 잡지들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1905년 이전 민족 개념의 형성기에는 시민적·정치적·개인주의적 요소들과 종족적·문화적·집단주의적 생각들이 경쟁했으나 민족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후자가 우세해지기 시작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1920년대 중엽까지는 서양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보편주의가 지배적이었지만 20년대 말을 경과하면서 식민지 인종주의와 국제사회주의의 압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민족의 종족화가 시도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저자는 교과서와 잡지에 나타난 요소들이 종족적 민족주의와 경쟁적인 민족 개념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거나, 근거가 빈약한 사실을 논리의 근거로 제시한다.

먼저 1905년 이전은 서구의 정치적 개념들이 활발하게 소개되던 시기였다. 이는 당시 교과서에 시민교육 같은 주제와 내용이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시기에 광의의 보편주의적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낼지언정, 곧바로 민족에 대한 시민적·정치적·개인주의적 이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12] 또 저자는 서양의

12) 저자는 김동택의 연구를 근거로 "민족과 관련된 용어들로서는 정치적·시민적 용어들(백성, 인민)이 인종적이거나 종족적인 용어들(동포, 형제)을 압도했다(186)"고 서술한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 김동택은 기본적으로 "『독립신문』이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보완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근대국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옹호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1920년대 초에 출현한 세계주의적 보편주의를 예증한다고 주장하는데(84-85, 196). 필자가 보기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만이 아니라 강한 집단주의적 성격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민족개조란, 결국은 그 민족을 조성한 각 개인의 개조의 문제"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은 무엇보다 '국가라는 단체의 일원'이며,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되 단체의 생명은 무한하여 영구"하기 때문에 단체의 "중심인물을 통하여 나오는 명령에 복종하여 조직적으로 민족개조의 대사업을 경영"해야 하고 "개인보다 단체를, 즉 사보다 공을 중히 여겨 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명으로 알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리고 '민족성의 근본적 성격은 불가변적'이며 조선인은 '혈통과 언어와 성정이 극히 단순하여 통일적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없고 개조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편의를 가졌다'라고도 언급한다.[13] 물론 필자가, 「민족개조론」이 이광수가 이후 발표한 「조선민족론」 등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14] 다만 「민족개조론」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만 해석하기는 힘들며, 1920년대 "보편주의의 지배(203)"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탄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농촌주의: 유의미한 경쟁자?

7장 "전통, 근대성, 민족"에서 신기욱은 근대적이고 산업적인 개념들과 경쟁하면서

를 추구했지, 근대국민국가를 구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백성, 인민, 신민, 국민은 사회정치적인 행위 주체로서의 새로운 의미, 예컨대 참정권이나 주권을 지닌 국민이라는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어떤 용어의 사용, 예컨대 "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택, 「「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소명출판, 2006, 189, 201쪽. 다른 한편 "동포"라는 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2006.같은 책을 참고하라.

13)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23호(5월) (1922), 개벽사.

14) 이광수, 「조선민족론」, 『동광』(『동광총서』 1권), 동광사, 1933. 저자는 특히 「조선민족론」에서 이광수가 보다 선명한 종족적 민족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근대적인 민족정체성 개념을 주창한 농촌주의를 다룬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농촌주의는 다양한 견해와 운동을 포괄하지만, "조선농민사를 제외하면, 이런 집단들은 지속적인 운동을 하지 못했으며, 조선농민사조차도 1930년대 말에 정부가 주도하는 농촌운동에 흡수되었다(217)." 그것은 "근대화론자들의 거대담론에 의해 정치적으로 주변화(230)"된 "잃어버린 다양성(229)"이었다.[15] 다른 한편, 저자는 농촌주의자들이 "민족에 대한 근대주의 개념에 관해서 논쟁했지만 한국민족/인종은 타고난 것이며 불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227-8)"고 주장한다. 농촌주의가 일시적·파편적·주변적 담론이었으며, 종족적 민족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런 서술들은 과연 농촌주의가, 그 견해가 지닌 가치를 떠나서, 종족적 민족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경쟁자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6. 종족적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적인 정치?

8장에서 저자는 분단, 즉 영토의 분할이 일체감의 일차적 근원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냈으며, "각 정권은 자신의 존재이유(즉 남한의 반공과 북한의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정체성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개념을 전유했으며,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고 전체 한국의 (종족적) 공동체의 대표권을 독점할 권리를 주장했다(232-3)"고 언급한다. 두 개의 한국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기준, 곧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성하며, 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을 구성할 것인가"를 적용한 것이다(235-6). 그리고 이런 정치적 기준은 같은 종족적 민족의 일부를, 한국을 외세에 팔아먹는 반민족 분자로 배제하는 토대가 되었다. 요컨대 "이승만과 김일성이 지닌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상호 배제의 원칙, 공동의

15) 저자는 농촌주의가 "해방이후의 한국에서 반근대주의 담론을 위한 중요한 문화적 토대를 계속 제공해왔다(230)"고 주장하면서, "산업화의 정점에서도 농촌 전통과 농민을 한민족의 정수로 보는 견해는 완전히 망각되거나 간과되지 않았다. 박정희정권이 1970년대에 추진한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촌 전통을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정신적 자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었다(230)"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신기욱은 새마을운동을 반근대주의 담론으로 파악하는 것인가?

단일종족의식과 엇갈리게 경쟁하는 원칙을 예증한다(238)."

그러나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남한과 북한 모두 "분단을 일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으며 한민족을 분열된 채 남아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될 하나의 유기체로 가정했다(238)"는 것, 즉 종족적 민족의 순수성과 단일성 앞에서 멈춘다. 그것은 저자가 '민족대표성을 둘러싼 논쟁적인 정치'에 대해, 종족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접합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16] 종족의 순수성 내지는 일관된 집단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압력과 종족적 민족에 대한 "억지스럽고 문제 있는(243)" 집착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종족국가를 배경으로 공동의 종족정체성이 통합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단일종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한국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사회정체성이론의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를 통해 그 "수수께끼"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검은 양 효과는 외부의 도전에 직면해 내집단의 일관된 집단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압력이, 내집단 내부의 차이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억압과 바람직하지 않은 구성원(검은 양)에 대한 강한 비방을 통해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 볼 때, 단일종족의식을 깊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일종족의 환상과 내집단의 동질성을 수호하려는 강한 압력이 오히려 내부의 '반역자들'을 정체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게 하여,[17] 종족공동체를 정화한다는 미명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키거나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질적인 관념과 사상을 일소하려는 시도를 낳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토완정론과 남한의 북진통일론은 모두 "분단된 한국의 잃어버린 종족단일성을 회복하려는 극도의 집착을 반영"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1945년 이후의 분단으로 깨진 단일종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의 논리적 결과였다(246-7)." 요컨대 이런 설명에서 민족대표성을 둘러싼 논쟁적인 정치의 원천은 바로 종족적 민족주의다.

---

16) 여기에 대해서는 4절 "대안적인 해석: 종족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에서 다룰 것이다.

17) 이 경우 내집단은 영토의 분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남한, 북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저자는 내부의 '반역자들'을 "남한의 관점에서는 김일성과 그의 공산주의 추종자들, 북한의 관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의 지지자들(243)"이라고 명시한다.

8장에서 저자가 어떻게 종족적 민족주의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진 민족대표성의 정치에서 깊은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했다면, 9장에서 저자는 특히, '민중적 민족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1980년대 남한 내부에서 벌어진 민족 개념을 둘러싼 경쟁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도 우리는 민족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개념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주도의 민족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며 대중적 지지를 획득(266)"한 민중적 민족주의는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에 속하는 동질적인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족과 민족정체성을 반공과 근대화가 아니라 외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민족투쟁과 한민족 통일의 관점에서 규정하면서 "정치적·경제적·민족적 발전과정에서 억압받거나,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민중의, 따라서 민족의 핵으로 규정했다(266)." 곧 지배담론의 공식적 민족 개념과 민중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종족적 토대에는 동의했지만,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263).

하지만 저자의 분석에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 모두의 본질적인 행태를 규정한 것은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토대였다. 그는 정부와 반체제 지식인들 모두 단일민족성을 당연시했으며, 오직 정치적인 양상만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점이야말로 "왜 현대 한국에서 민족주의 정치가 아주 감정적이고, 격렬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비민주적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즉, 양측은 동일한 종족적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이 같은 (종족적) 민족구성원으로서 자신들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측은 반민족적 행위를 한다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것이다(272-3). 나아가 저자는 민중적 민족주의에 온존된 종족적 민족주의의 토대는, 그것을 "본질주의의 덫"에 빠뜨렸다고 지적한다. 1980년 후반 이래 저항운동의 급진화 속에서 종족적 민족과 민중의 결합이 다른 형태의 정체성을 압도하는 '지시적인 범주'—무엇이 규범적으로 옳으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하는(273)—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민중담론의 근본적인 구조는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민중적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누가 민중을 구성하는가 하는 기준, 혹은 적어도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인가 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특정한 파벌(예컨

대 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 정치엘리트 등)을 배제했다. 이런 근본적인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부분적으로 왜 민중이데올로기가 포괄적이라는 스스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는지 설명해준다(274)." 저자는 그 결과로 민중민족주의가 대중적인 지지를 상실했고, 1990년대 남한의 대중 담론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8장과 9장에서 단일민족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한 사회(한국)에서 종족민족주의가 단순히 통합력이 아니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이론적 시도, 그리고 민중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종족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상이한 민족 개념이 벌인 경쟁의 소산으로 한국의 종족민족주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적 민족주의 자체가 정치적 갈등의 주요한 원천이며 정치적 민족 개념 간의 논쟁은 종족적 민족성의 토대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 때문에 종족적 민족주의가 지닌 부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데 치중한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에 미친 검은 양 효과에 대한 설명은 이미 가시적으로 드러난 '반민족'에 대한 비방과 그를 통한 동질성 강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치중할 뿐, '누가, 민족 구성원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잠재적인) 검은 양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또 민중민주의를 '민중-민주-민족'의 개념적 결합체로 설명하면서도, 그 개념적 결합은 종족적 민족 개념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혈통에 기반한 종족적 민족주의가 '집단정체성의 지배적 근원이 된 이후에도 그것의 토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논쟁적인 정치에 쉽게 휘말려 들었음(43-4)'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반대를 증명한 듯하다.

Ⅲ. 분석틀과 실제 분석의 괴리

신기욱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종족적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경쟁적인 견해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것은 첫째, 혈통을 자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종족주의적이거나 시원주의적인 견해, 둘째, 한민족을 조선

왕조 말기에 도입된 근대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혹은 구성주의적(constructionists) 견해, 셋째, 근대 이전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발전—안정된 영토와 장기간 지속된 관료주의 국가, 근대 이전의 한국인들이 지닌 '전근대 민족', '원민족', '종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시원주의자들처럼 한민족을 선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견해이다(20-23).[18] 신기욱은 이런 기존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무익"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서구에 기원을 두며 주로 민족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체제의 출현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민족이 대규모의 문화적 표준화와 사회적 조직화라는 상대적으로 비인격적인 매개체들의 중재—예컨대 인쇄자본주의—를 통해 재생산되는 '상상된 공동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에 기초하여, 신기욱은 "한민족이 근대적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은 한민족이 출현하고, 도전을 받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형태의 집단적이거나 정언적인 정체성들을 제압하고, 종족 및 인종과 융합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25)"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 '구성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새로운 분석틀—'배태된, 우연한, 경쟁적인'—을 제시한다. 이런 분석틀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민족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분석틀과 시원주의적 견해의 차별성은 '일견'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근대주의적 견해 및 한국의 특수한 경험을 강조하는 견해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기욱은 '배태된, 우연한, 경쟁적인' 민족의 구성이라는 틀로 한국 민족주의가 종국적으로는 혈통에 기반한 종족적 민족주의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배태된'이란 민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대성의 양상들—예컨대 자본주의—이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민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재하는 조건들과 접합되어 구체적인 사례들에서는 상이한 양식으로 출현함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선재하는 감정, 문화유산, 종족의 구성물

18) 이하 괄호 속에 표기한 쪽수는 신기욱, 『한국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이진준 역, 창비, 2009의 쪽수를 가리킨다.

들"을 그 형성과정에 통합하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형성한다(26). '우연한'이란 민족과 민족주의 출현에 불가피한 객관적인 조건은 없다는 것, 선재하는 종족적 관계들이나 문화유산이 특정한 형태의 민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27). 한편으로 '배태된'은 선재하는 역사적 구성물을 단순히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부각시킴으로써 근대주의적 견해와 저자의 입장이 갖는 차이를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우연한'은 선재하는 역사적 구성물의 규정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와의 차이를 드러낸다. 선재하는 역사적 구성물이 민족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가능성 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구성은 "역사적 우연의 문제"이다(27). 이런 역사적으로 우연한 민족의 구성에서 "결정적 요소"는, 그것이 논쟁적인 정치의 결과라는 점이다. 저자의 관점에서, 민족은 민족이라는 개념(예컨대 시민적·인종적)을 두고 경쟁하기 전에 먼저 다른 형태의 집단 정체성들, 즉 계급, 성, 인종과 같은 비민족적·하위민족적·초민족적인 정체성들과 경쟁해야 했다. 또한 민족에 대한 특정한 개념 역시 경쟁관계에 있는 상이한 민족 개념들과 경쟁을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은 민족됨과 민족주의의 형태들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국가 민족주의 대 반대 세력의 민족주의, 민족됨에 대한 정치적·영토적 개념 대 인종적·문화적 개념, 시민적·개인적인 민족 개념 대 인종적·집단적인 민족 개념 등—이 지배권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의 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30).

아울러 우리는 이런 분석틀이 이 저작의 기본 개념인 종족에 대한 규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인종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이며 결코 변치 않는 표현형적이고 유전형적인 특징에 따라 정의하는 집합체(20)"로 이해된다. 종족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언어와 역사에 토대를 둔 문화적 현상(20)"으로서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관계의 그물망"이다(24). 그리고 민족은 "대규모의 문화적 표준화와 사회적 조직화라는 상대적으로 비인격적인 매개체들의 중재를 통해 재생산"되는 "유사한 개인들의 범주"이다(24).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혈통에 기반한 종족적 민족정체성에 착목하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종족 규정에서 '혈통'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종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인가? 분명 종족성에 대한 정의는 다분히 논쟁적이지만, 종족성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혈통을 배제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은 듯하다. 어원적으로도 종족의 그리스어 ethnos는 문화적 특징을 강조하지만, 그 하위개념으로 생물학적인 혈족관계의 차이를 강조하는 genos를 포섭함으로써 문화적 특징과 함께 혈통의 의미를 지닌다. 종족민족주의를 논하는 다양한 학자들도 혈통을 종족성의 구성요소로 드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A. 스미스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ethnic 'blood-and-soil' forms of nationalism"으로 표기하기도 한다.[19] 이것은 혈통의 누락이 이론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누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둘러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종족민족주의나 한민족에 대한 유기적 개념의 출현과 지배는 둘 다 역사적으로 배태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우연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과 밖에서 벌어진 논쟁적인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이 내 견해다(30-1)." 다시 말해서 저자는 혈통으로 정의된 종족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 반대방향을 취한다. '순수한 피의 혈통'은 역사적으로 배태된, 우연한, 논쟁적인 정치의 산물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혈통은 자연사적인 계보가 아니라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구성되고 상상된 계보이다.

우리는 신기욱이 제시하는 분석틀에서 시원주의적 견해와 구성주의적 견해가 지닌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이론적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 왜 민족주의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맺는 정서적 참여"에서 힘을 얻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을 갖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26). 구성주의적 견해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 반면, 시원주의적 견해는 '역사적인 민족의 실체'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민족의식을 가정함으로써 여기에 답변한다.[20] 그러나 시원주의적 견해는 문제를 해결한다기보

19) 이양호,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민족사상연구』, 9호 (2001), 경기대 민족문제연구소.; Anthony D. Smith.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Polity, 2001, p. 41.

20) 신용하는 "만일 '민족'이 사회에 '실재'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이 꾸며낸 '허구'이며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면, 왜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구'이며 '상상'에 불과한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희생했으며, 또 희생하려 하는가?(18)"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민족주의

다는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적인 가정에 합류하는 방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신기욱은 '배태된'과 '우연한'이라는 분석틀을 통해서 구성과정에서 선재하는 역사적 구성물과 근대성의 결합되는 것을 보고자하며, 나아가 그 우연한 결합이 결정적으로 '경쟁적인' 과정, 즉 논쟁적인 정치의 소산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국 이 저작이 목표하는 분석의 성공 여부, 곧 시원주의적 견해의 오류와 구성주의적 견해의 난제를 얼마나 극복하는가의 여부는, '배태된, 우연한, 경쟁적인' 민족의 구성이라는 분석틀에 부합하게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에 관련된 논쟁적인 정치를 일관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혈통에 기반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역사적 구성의 결과물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신기욱은, 이미 2절 "역사적 해석의 문제"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민족과 경쟁을 벌인 대안적인 정체성이 어떤 점에서 민족과 구분되는 정체성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하거나, 역사적인 현실을 과잉단순화하면서 대안적인 정체성과 민족의 경쟁 및 종족적 민족주의의 계보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그려낸다. 그 결과, 이 책은 전반적으로 혈통에 기반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역사적 구성의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주의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처음부터 종족적 민족주의의 패권적 지위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논쟁적인 정치를 거쳐 종족적 민족주의가 구성되었는가라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종족적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와 관련된 정치를 압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저자가 자신의 분석 목표에 미달했다는 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저자가 자신의 분석틀과는 다른 암묵적인 전제들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저자는 종족적 민족성이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행위의 원천이 된다고 가정한다. '종족집단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식될 때, 정치적 충성은 종족정체성과

자들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 실체로 상상하도록 꾸몄기 때문(19)"이라는 방식은 그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학문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시원주의적 견해가 도전하는/거부하는 구성주의적 견해의 난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40집 1호(2006), 한국사회학회, 18-19쪽.

같은 수준의 정서적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코너(Connor)의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종족정체성이 정치적 충성보다 훨씬 더 깊은 헌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의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족정체성이 모든 경우에 통합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만 이론(異論)을 제기한다. 예컨대 그가 검은 양 효과를 통해 주장하는 바의 한 측면은 종족정체성이 그 자체로 갈등의 원천일 수 있으며, 그것도 훨씬 더 큰 집착과 격렬한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 무엇인가(what is)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think is)이기 때문에 종족적 민족정체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reality)를 낳을 수 있다(18)'는 관점과 상응한다. 그리하여 그가 '배태된, 우연한, 경쟁적인'이라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진행한 분석의 실제 결과는, 그 원래 의도가 민족에 대한 구성주의적 견해가 가지고 있는 난제—민족의 구성을 설명하는 작업과 대중적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가진 효력을 연결시켜야 한다는—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아이러니컬하게 민족의식에서 발원하는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위를 가정하는 시원주의적 견해에 가까워진다.

다음으로, 저자는 종족적 민족정체성에 폐쇄성, 반민주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결부시킨다. 그는 논의의 출발점에서 "정치적 민족주의를 시민적, 통합적, 건설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종족민족주의는 위험하고,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는 강한 전통"에 반대하여, 그런 견해는 "종족민족주의의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채 그것의 특징을 본질화한다"고 주장했다(34-5). 하지만 사실 이 저작에서 저자가 종족적 민족정체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내집단의 순수성을 위해서 순응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배제과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며(8장), 사회적·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본질주의의 덫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9장), 시민적·민주적 민족정체성과 대당을 이룬다. 종족동질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10장의 말미에서, 저자는 종족동질성에 대한 태도와 믿음이 "통일 노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통일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두 체제의 부드러운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306)"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런 언급의 바탕에는 "종족동질성에 대한 믿음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는 인식, 그리고 단일종족의식은 '그것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은 물론

그것의 존재와 힘을 인식하여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또 다른 관점—도구주의적인—이 깔려 있다. 따라서 여전히 통일과정에서의 '배타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종족의식을 넘어선 시민적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적인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30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종족적 민족정체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적 민족정체성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이 저작은 한국 종족민족주의의 부정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족민족주의의 다양한 발전가능성뿐만 아니라 시민적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다.

Ⅳ. 대안적인 해석: 종족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

저자가 직면한 이런 곤경은 높은 단일민족의식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한국민족주의를 설명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는 결국 한국민족주의를 '예외적 사례'로 보는 서구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관점에 동조하면서, '종족적 민족주의 내에서 이루어는 정치'를 분석한다. 이 경우 문제는 정치적 차원의 성격 및 출현 양상이 종족적 민족주의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정치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족 개념을 둘러싼 논쟁적인 정치, 곧 저자가 분석틀로 제시했던 '경쟁적인' 측면은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력히 주조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그 강점들을 강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사회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 역시 정치적 조건과 불가분하게 엮여 있으며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결합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이차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족주의의 강한 종족 동질성 의식을 강조하는 서구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관념에 편승해서 종족적 동질성으로 민족주의와 관련된 정치를 모두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주의에서 종족적 정체성은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과 어떻게 접합되고 이용되어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해명될 때 어떻게 민족주의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통성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저작에서 종족적 민족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 민족주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한국민족주의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접합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검은 양 효과로 인해,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 "단일종족의 환상"에 집착해 "외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내부의 '반역자들'"을 정체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격심하고 항구적"이라고 언급한다(242-3). 여기서 질문을 던져 보자. 한국민족주의는 그 형성시기부터 강력한 국제적 타자, 즉 외집단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는 저자 역시 줄곧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항구적인 갈등이 격심해지는 요인은 단일종족의 환상, 곧 종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8장에서 '민족대표성의 정치'를 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영토분할의 현실**은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강력한 국제적인 타자들과 더불어 종족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초래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틈**은 그런 종족정체성의 단일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선택적인 내집단의 비방과 순응 감시의 과정을 촉발한다(242, 강조는 필자).

이 인용문은 한민족 전체라는 내집단에서 "누가 종족적 민족을 규정하고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242)"를 두고 벌어지는 민족대표성의 정치가, 종족적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영토분할이 강요한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성하며, 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을 구성할 것인가(235-6)"—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와 냉전체제하의 미·소 등 외집단의 위협이 어느 정도 항구적이었다고 할 때, 내적인 갈등을 격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오히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틈의 크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이 종족적 민족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근원을 가진다는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가 불가분하게 엮여 있어서

하나의 차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의 모토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때, 이것만으로는 민족의 일부를 민족반역자로 배제할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 논리의 귀결로 김일성과 이승만은 "국경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을 민족반역자로 이루어진 꼭두각시정권의 순진한 희생자들"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다.[21] 다른 한편 민족에 대한 정치적 기준은 종족적 민족의 일부를 반민족 분자로 배제하는 토대로 작용했지만(236), 그 기준이 민족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최종적인 정당화를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포섭과 배제의 구체적인 접합 양상은, 예컨대 내전을 불사하는 극단적인 갈등에서부터 정치적인 비방을 하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까지, 역사적·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족 개념을 둘러싼 논쟁적인 정치에서 정작 분석되어야 할 것은, 그 논쟁적인 정치를 일원적인 근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접합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의 틀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적인 관점은 저자가 부딪힌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저자가 깊은 행위의 원천으로 가정된 종족적 민족주의로 구성주의적 견해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전히 남겨 둔 일종의 절충론적 방법에 가깝다. 반면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이라는 관점은, 설령 종족적 민족성이 중요한 행위의 원천이라고 할지라도 종족적 정체성과 실제 정치적 행위의 발현 사이에는 중요한 문턱이 있음을 시사한다.[22]

---

21) 저자는 설문조사를 분석하면서 "종족동질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분단에 대해 북한정권을 비난할 개연성이 더 높지만 통일 이후 공산당원들을 처벌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다는 점은 흥미롭다(303)"고 기술한다. 설문조사 문항의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들(293)"을 답변자들이 "공산당원"으로만 생각했을 것인가라는 점도 의문시되지만, 애초에 종족동질성의 논리 자체만으로는 배제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결과는 전혀 흥미롭지 않다.

22) 신기욱은 경험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종족의식만으로는 통일과정을 촉진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족동질성에 대한 믿음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306)"라고 언급한다. 이 언급은 종족적 정체성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의 원천일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어떤 정치적 행위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저자가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는 명백히 무해하다. 다만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결합할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36)"고 언급한 부분과도 상응할 것이다.

즉, '단일민족이라는 공유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표출되는가'에는 다양한 견해의 차이, '지배'와 '저항'이 각각 수행하는 정치적 동원 등의 계기가 결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대안적인 정체성들 및 상이한 민족 개념들 사이에 벌어진 경쟁의 소산임을 분석하려 했지만, 필자가 보기에 어떤 의미 있는 경쟁의 과정이 포착되어 분석되지는 않은 듯하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형성, 강화에 순기능적인 배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적 충성과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맺는 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민족주의는 식민지시기와 분단을 거치면서 줄곧 민족과 정치적 공동체의 경계가 괴리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역사적 조건에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괴리와 불일치는 저항뿐만 아니라 일탈, 순응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당성의 근거를 취할 수 있는, 또한 정당성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유동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이런 역사적 조건에서 모든 대안적인 정체성이나 민족에 대한 경쟁적인 개념들이 동등하게 뿌리를 내릴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인식[23]이 중요한 만큼이나 이런 유동성은,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한 민족주의 개념의 패권적 지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인식도 중요하다. 이 경우 우리는, 예컨대, 대안적인 정체성들이나 민족에 대한 보편주의적 개념을, 연기된 민족독립의 꿈과 현실의 처지를 합리화할 수 있는 힘, 민족국가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 속에서 보존된 민족문화의 독자성 유지를 꿈꾸게 하는 힘, 민족을 떠나서 제국 속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힘, 민족에 얽매이지 않고 제국의 질서를 부정할 수 있게 하는 힘 등 민족적 충성과 정치적 공동체의 충성이 맺는 관계를 다양하게 굴절시켜 상상하게 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시민적 민족주의의 대당으로 설정하는 저자의 논리 내에서 실상 시민적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을 해결할

23) 이것은 저자가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를 가치론적인 대당으로 볼 경우,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시민적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되고 있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반대로 시민적 민족주의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식의 대당구조가 아니다. 단지 종족적 민족주의가 포섭의 논리로 작용할 때, 그 억압성이나 반민주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정치적 민족주의에 달려 있다는 관념을 함축한다. 다른 한편 정치적 민족주의를 규정하는 민족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그 자체로 개방적·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조건에 열려 있는 것이다.[24] 따라서 이런 관점은 어떤 정치적 기준이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구성원들을 구별짓고 억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다 민주적인 이념이 구성원들의 심중에 좀 더 원활하게 정착하는 상황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만약 긍정적인 가치로 충만한 시민적 민족주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대립항으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가 접합된 한 가지 결과물일 것이다.

Ⅴ. 나가며

최근 민족의 실재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가 아니라 실재의 공동체라는 신용하의 주장에 대해 박동천은 민족이란 '상징적인 실체'라는 온당한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박동천의 비판이 학술적으로 타당할지라도, 곧 혈연이란 자연의 소산이 아니라 상징일 수밖에 없고 사회집단의 경계는 어떤 식으로든 인위적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민족주의의 대중적인 호소력이 상징체계로서의 민족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남는다. "진실이나 덕성이나 이익을 통해서 매개되

24) 그러므로 이 개방성은 한 사회의 민족주의가 처한 상황적 제약에 따라 성격과 정도를 달리할 것이다.

고 구성되는 민족적 통합이, 즉각적이고 평면적인 민족주의에 비해 민족적 위신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동천의 주장은 분명 경청해야 할 가치가 있다.[25] 그러나 대중적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민족의 기원과 전개를 선별적으로 은폐하고 망각하게 하면서 민족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동일시를 이끌어내는 데서 정치적인 위력을 갖는다.[26] 이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가 스스로 그 직접적인 동일시에 갇혀 "민족주의 운동의 목적과 신비화가 연관되는 경로"[27]를 보지 못한 채 '민족은 민족적 행위를 낳는다'는 일종의 동어반복(tautology)을 주장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하지만, 여전히 민족에 대한 진실이 민족주의의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신기욱의 이 저작은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역사적 조건 속에서 벌어진 논쟁적인 정치를 통해 '구성'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구성주의적 견해의 난제와 시원주의적 견해의 동어반복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주목할 만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의 시도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구성주의적 견해와 시원주의적 견해의 모호한 절충이라는 양상으로 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구성주의적 방법을 택하면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력을 설명하려는 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딜레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저작은 이런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신기욱의 저작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의 접합이라는 관점은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

25) 박동천, 「민족의 실체성에 관한 철학적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2집 3호 (2008), 한국정치학회, 47쪽.

26) 르낭은 "망각은 민족 창출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민족은 본질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역, 책세상, 2002, 61-62쪽.

27) 박동천, 같은 글, 30쪽.

참고문헌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소명출판, 2006.

김동택, 「『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소명출판, 2006.

박동천, 「민족의 실체성에 관한 철학적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2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8.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백남운, 하일식 엮음, 『휘편』, 이론과실천, 1991.

신기욱, 『한국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이진준 역, 창작과비평사, 2009.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40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06.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행선 역, 책세상, 2002.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23호, 개벽사, 1922.

이광수, 「조선민족론」, 『동광』,『동광총서』 1권, 동광사, 1933.

이양호,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민족사상연구』 9호, 경기대 민족문제연구소, 2001.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 세계, 주체』, 푸른역사, 2009.

프래신짓트 두아라,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한석정 역, 나남, 2008.

Hobsbawm, Eric,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Smith, Anthony D.,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Polity Press, 2001.

【ABSTRACT】

In his book, Ethnic Nationalism: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Gi-Wook Shin explores the historical origin and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Korea, to which very little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Reviewing the book, I will point out several critical aspects as follows. Firstly, this work is steeped in the errors and biase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s. For instance, it fails to reasonably show how the alternative identity it describes as competing with national identity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national identity itself. Also, it tends to artificially depict the alternative identity as well as the genealogy of nations' competition and ethnic nationalism by over simplifying historical facts. Secondly, there appears to be a gap between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actual analysi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imbedded, contingent, and contested" construction of a nation put forward by the author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faults lying in the primordialist view, and difficulties in the constructionist. Yet, this work does not convincingly suggest that the Korean ethnic nationalism based on lineages is the outcome of historical construction being pertinent to such analytical framework, but rather shows that every element of Korean nationalism has made a contribution to consolidating a hegemonic position of ethnic nationalism from the beginning. Thirdly, whilst the author follows the western scholars' viewpoint on nationalism which regards the Korean nationalism as an "exceptional case", he seeks to examine "the politics occurring in ethnic nationalism." In this regard, a difficulty emerges because the politics involving the concept of nation, that is to say, the "contesting" aspect of the construction of nationalism, disappears. However, even in viewing Korean nationalism as the exceptional case, the discourse still suggests that there exists political nationalism which is irreducible to ethnic nationalism. Thus, despite that Korean nationalism has "exceptional" nature, there is a conjuncture between ethnic nationalism and political, which needs to be explained.

【Key words】 ethnic nationalism, political nationalism, Pan-Asianism, colonial racism, international socialism, primordialism, constructionism

논문 투고일: 2010. 01. 31
심사 완료일: 2010. 04. 10
게재 확정일: 2010. 04. 12